

역설적이게도 조계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승가다운 승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다. 31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법장 스님도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로 소감을 피력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종단 신뢰의 출발은 승가가 본분사에 충실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동시대 중생들의 고통을 위무할 수 있어야 하고, 휴식과 정신적 여백을 제공함은 물론 문화(재) 분야에서도 전통 가치의 현대적 구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승불교요, 시대가 요청하는 불교의 사명이기도 하다. 조계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이렇게 분명하다.

불교, 이시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글 쓰는 순서

- ① 조계종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 ② 불교, 이시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절 누구나 기댈 수 있는 곳으로



◁대중사 '새벽 숲길'에 참가한 일반인들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열린 청량사산사음악회.

●사회 리더 그룹으로서의 승가
98년 종단사태를 겪고 난 조계종은 종단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99년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 불교시민사회활동 조직 육성, 지역불교문화 활동 강화, 1사찰 1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지금 조계종의 모습은 그때와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법장스님이 새 총무원장이 되면서 시대변화에 걸맞는 조계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조계종은 5일 과정에 가까운 총무원 집행부 인선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권위주의나 문중 및 계파의 갈등 청산과 함께 오랜 관행을 깬 새로운 시도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계종이 국민의 사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야말로 사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

우선 수행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상당수 교계 관계자들은 "4년 기본교육 후 구족계를 받는 현 제도를 적어도 7-8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사찰재정의 투명화를 이루는 것도 필수적이다. 총무원장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제

도는 내부갈등을 낳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 징수제도로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받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공개로 통해 사찰운영도 투명하게 해야 하며, 문중과 계파간의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과 고통 분담
현대는 시민의 시대. 종교의 사회 참여는 필연적이며, 사회는 이를

승가위상 확립 국민사표로 거듭나야

NGO·복지 등 적극적 사회참여 시대적 소명
근기에 맞는 수행법 개발·장소 제공 바람직

템플스테이 내국인에 상시 실시 필요

요구하고 있다. NGO 및 복지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불교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현재 불교 NGO 및 복지는 과거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경이나 복지관 위주의 특구적 특성을 받는 현 제도를 적어도 7-8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사찰재정의 투명화를 이루는 것도 필수적이다. 총무원장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제

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불교 NGO 단체는 모두 50여 곳으로 다른 종교 단체에 비해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이버 상의 NGO단체는 불교의 경우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 3~8배나 적다. 불교 복지기관은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최소 5-8년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NGO와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활

승가위상 확립 국민사표로 거듭나야

NGO·복지 등 적극적 사회참여 시대적 소명
근기에 맞는 수행법 개발·장소 제공 바람직

템플스테이 내국인에 상시 실시 필요

동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한 개별 사찰도 곧 NGO 이자 복지단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인식전환과 함께 종단 차원의 종합 계획안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갖가지 불사도 지양해야 한다. 꼭 필요한 불사정 분야에 치우쳐 있다. 분야를 넓히지 않고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먼저 종단 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NGO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현

●휴식과 정신적 여백 제공
엄마 품 같은 아늑함, 사찰은 언제나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수행 및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교문화도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들어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근기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조계종이 진행하고 있는 종단 수행체계 정립과 함께 국민들을 위한 수행법을 개발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사찰 수행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 분사급 사찰 대부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회를 열고 있지만 지원자의 30%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실시한 템플스테이가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큰 관심을 끈만큼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불교문화 활동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향이 짙고 지역과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사찰들이 소규모 전시회나 음악회, 문화인사 초청 강연회 등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해 누구나 잘 마당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절은 신앙처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휴식처로 거듭나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buddhapia.com

남방불교 시각 간화선 비판 잘못

대성스님, '각목스님' 간화선 '힌두화론'에 반론

"한국 간화선이 힌두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있었던 '선우는 강' 주최의 수행법의 석상에서 각목 스님이 이렇게 선언했다. 스님은 그 외에도 한국의 간화선 수행이 '힘의 논리'나 '화두만 타파하면 된다는 단세포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 간화선이 무어(無我)를 잊어버리고 외도인 힌두교의 진아를 추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무아'와 '진아' 개념에 대한 스님의 인식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아'를 넘어선 어떤 궁극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아'란 '나'가 없다는 말인데, 여기서 '나'란 무엇을 말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가 보통 '나'라고 알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 존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오온(五蘊)의 화합'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개아'를 넘어선 어떤 궁극적인 나, 혹은 참나(眞我)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부처님이 직접 대답하기를 회피한 문제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는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다. 하나는 모든 '나' 개념을 철저히 부정하는 남방불교의 교의이고, 다른 하나는 '에고(ego) 없음' 혹은 '무아'와 함께 '진아' 개념도 인정하는 힌두교나 대승불

태이며, 따라서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불성, 본래면목, 한 물건 등으로 표현했고,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진아라고 불렀다. 이것이 힌두교의 '진아'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따라서 우리는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진아는 곧 진아가 아니며, 그 이름이 진아일 뿐'이라고.

요컨대 진아, 불성 등의 용어는 해탈의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영원불멸한 실체의 있고 없음 그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용어도 언어를 넘어선 그 궁극의 상태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무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무아'나 '진아'라는 말은 그 반대 개념에 대한 '취착', 즉 상대적 분별을 끊기 위해서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각목 스님이 주장하는 '무아'는 이러한 상대적 차원을 과연 넘어서 있는가? 만일 그것이 상대적 범주를 넘어서 있다면 그것은 '진아'와 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일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무아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개념에 불과하여 깨달음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초기경전들이 '무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전은 기본적으로 개념과 이론의 결집체이며 언어를 넘어선 진리

진아·불성, 해탈 자체를 말하는 것

위빠사나 등 모두 훌륭한 수행법

교의 교의이다.

전자의 견해는 특히 남방 불교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남방불교의 학습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이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승불교(혹은 선불교)는 후자의 견해에 가깝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많은 조사, 선사들이 진아 개념과 다를 바 없는 '불성, 자성, 본래면목' 등을 이야기해 왔고, 경전적 근거도 있기 때문이다. 불성이나 여래장 등을 설하는 대승경전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열반경>에서는 진아 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40권본 <열반경>의 제5권은 해탈의 여러 측면을 명쾌하게 서술한 경전인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또한 해탈은 모든 유위법(有爲法)을 끊고 모든 무무(無漏)의 선한 법을 출생시키며, 자아[我]와 자아 없음[無我]과 자아 아닌[非我]과 무아 아닌[非無我]의 모든 길을 단절하고 막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지 취착(取着)만을 끊을 뿐이지 진정한 자아를 보는 것을 단절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를 본다는 것은 불성(佛性)을 이룬다는 것이니, 불성은 참된 해탈이며 참된 해탈이 곧 여래이다[한글대장경 <대반열반경> 제1권, 119쪽]."

여기서 '진정한 자아'라고 한 것은 바로 각목 스님이 공격하는 '진아'를 말한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무아 개념의 상대어가 아니라, 유아와 무아, 비아와 비무아를 모두 넘어선 개념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분별할 수도 없는 궁극적인 그 무엇, 즉 해탈 혹은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상태는 영원한 깨달음의 상

그 자체는 아니다. 어느 한 경전도 절대적 진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지 않다. 다양한 수준의 경전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다양하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듣는 사람들의 필요와 수준에 맞추어진 방편 설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 자신의 '무아' 개념이 남방 스님들이나 각목 스님이 관념하는 '무아' 개념과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언어 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와 훨씬 깊은 수준을 포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방 경전에서 말하는 것이 어찌 '무아설'의 전부가 하겠는가? 오히려 <열반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부처님의 원뜻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아 개념을 가지고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스님의 논리는 일견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듯하지만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대승불교의 진아 개념을 무시한 채 우리의 근본 성품을 무아 일반도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시야가 좁고, 실천적 관점에서 보자면 수행자들의 다양한 근기와 취향을 일방적으로 제약하여 수행 과정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단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전통에서 서 있는 간화선을 논하러면 대승경전과 조사, 선사들의 어록에 바탕해야 하며, 남방불교적 시각에서 간화선을 비판하려 드는 것은 출발이 잘못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수행법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위빠사나는 간화선이란 '나는 누구인가?' 등 모두 그 나름대로 훌륭한 수행법이며, 어느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글쓴이 대성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 <감삼지전>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 되찾기 10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1998년 11월 4일

임준규 한의학 박사
·분당 차한방병원 원장 역임
·남원 호성 한방병원 원장 역임

생식의 1식 6조

1. 체질개선	4. 완전한 다이어트
2. 건강중진] (생식요법)	5. 완전식사
3. 피로회복	6. 식습관 개선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1개월분 (40g × 60포)

고을빛 생식은 단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생식 원미, 매주콩, 적두, 약콩, 서리태, 울무, 보리, 찰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개미, 쑥, 연근, 양근, 감잎, 홍삼,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척, 결명자, 결명자, 결명자, 홍백약기스 등 32종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이런분들에게 필요함니다

-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에게**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캐변을 도와줍니다.
-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염색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 좋습니다.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 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